

“혜암 스님 수행과 개혁정신 이어받자”

혜암선사문화진흥회, 첫 학술대회 열고 다짐

‘공부하다 죽어라’는 가르침으로 잘 알려진 근현대 선지식 혜암 스님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처음으로 열렸다.

혜암선사문화진흥회(회장 성법)는 4월 16일 동국대 중앙강당을 가득 메운 1000여 불자들이 함께 학술대회를 열었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보냈으며,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이날 축하 영상을 통해 “혜암 스님은 선종을 널리 일으킨 분으로 일생동안 참선법을 선양하셨다”며 “후학들은 유훈을 받들어 정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94년 개혁 당시 혜암 스님과 인연이 깊은 前조계종 총무원장 월주 스님도 영상을 통해 “스님은 94년 개혁 당시 원로의장으로서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했으며, 대중을 독려해 부패한 구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기여했다”며 “정당한 스스로의 일생은 바로 정법을 향한 수행과 그 것을 펼치기 위한 실천행이었다”고 회고했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한재 스님은 “혜암 스님의 20년 행적이 오늘날 불교계를 낳게 했다. 다시한번 개혁불사 당시의 정신으로



16일 학술대회에서는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과 前총무원장 월주 스님이 영상을 통해 격려사를 보냈으며,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혜암 스님의 사상과 생애를 되짚었다.

진제 스님 “선종 널리 알린 분... 유훈 받들어 후학들 정진해야”
월주 스님 “개혁의 구심점 역할, 청정한 일생은 정법 실천”
여연 스님 “적극적 개혁의지 지닌 스좌 오늘의 불교가 배울점”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혜암대종사문도회장 성법 스님은 개회사를 통해 “혜암 스님의 정신을 선양하기 위해 구성된 ‘혜암선사문화진흥회’를 통해 포교 교육 승가복지 사회복지 장학사업 다문화지원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며 “오늘 학술세미나로 스님의 업적과 사상을 학술적으로 체계화해 흥법의 기초로 삼겠다”고 했다. 혜암 스님은 종단 개혁 구심점 여연 스님은 기초발제 ‘가야산의 대쪽, 혜암성관 대종사의 생애와 사상’에서 혜암 스님과 같은 출가수행자의 사표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4월 15일 ‘황제지보’ 반환이 발표된 직후 ‘문화재지킴이찾기’ 회원들이 보신각 앞에서 환호를 외치고 있다.

문화재 지킴이 불교계가 앞장섰다

4월 15일 서울 종로 보신각에서는 힘찬 환호성이 울려 퍼졌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맞춰 대한제국의 상징이었던 황제지보가 반환되기로 결정된 것. 보신각에 모인 이들은 이번 문화재 반환에 결정적 역할을 한 문화재지킴이찾기 대표 혜문 스님과 안민석 민주당 안민석 의원, 김정광 미주한국불교문화원장 등 불교계 시민운동가들이었다. 이들은 이날 문화재 환수를 축하하는 타종식을 이어갔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4월 25일 방한 시 황제지보와 수강태황제보, 유서지보, 준명지보, 향정심정서화지기, 우천하사, 쌍리, 춘화, 연향 등 9점을 반환한다. 이에 앞서 이들은 반환을 위해 ‘응답하라 오바마’ 캠페인을 벌여 시민서명으로 미국 정부에 청원을 넣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혜문 스님은 “국새와 어보 환수를 계기로 국운이 더욱 융성해지고 민족 통일이 앞당겨질 것”이라며 “이제는 그동안 힘을 아끼지 않은 많은 우리 국민들과 시민운동가들의 노력의 결과다. 또 불자의 역할이 컸다. 김진태 검찰총장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에게도 감사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16일 혜문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예방하고 이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혜문 스님은 “이번 황제지보 반환은 불교계가 문화재지킴이 역할을 한다는 인식을 심어준 계기”라며 “단순한 문화재 반환이 아니라 미 대통령이 갖고 오는 것이라 대중에게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 조사, 본격적 활동

서울·부산·인천, 강원 지역 등 전통사찰 포함 목조 문화재 총 65곳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올해 9월까지 서울, 부산, 인천, 강원 지역 등에 있는 목조 문화재 65곳에 대한 흰개미 조사에 착수한다. 4월 15일 밝혔다. 기후변화 등으로 급증하는 흰개미 활동에 따른 목조 문화재 생물피해 예방과 사전 조치를 위해서다.



문화재청의 흰개미 탐사 장면

이번 조사는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 전수조사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5년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검측 장비를 동원하고, 한 문화재 한 지킴이 협약 기관인 ‘삼성생명’의 협조를 받아 흰개미 탐지견을 문화재 현장에 투입해 조사한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탐지견에 의한 목조 문화재 흰개미 피해조사는 조기 발견과 예방 활동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며 “탐지견의 발달한 후각으로 서식 흔적을 탐지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사단이 검측 장비로 서식 여부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또 “흰개미는 빛을 싫어하고 주로 땅속에서 기동을 따라 이동하면서 목부재(木

部材)에 해를 끼치지만, 4~5월 봄철에는 군비활동(교미나 이주 등을 위하여 무리를 지어 비행)을 해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다”며 “이때 목조 문화재 소유자와 관리자의 각별한 관심이 문화재에 대한 흰개미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다르면서 같은 두 스님, 한국 불교 지남”

자현 스님, 김광식 동국대 교수, 석전과 한암 스님 재조명

“석전과 한암은 각기 조선시대 불교가 남긴 유산, 서양의 문명 및 종교의 유입, 국권 침탈이라는 현실에 직면해 불교를 구해야 한다는 시대인식에서 활동했다. 그들은 후학교육, 불조해명의 계승에서 다르면서 같은 길을 걸었다.”

김광식 동국대 교수는 4월 18일 한국불교학회에서 개최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 시대정신을 말하다’ 세미나서 두 스님의 사상이 강학과 선수행에서의 양대 축으로 자리한 현재 불교계를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두 스님은 강원과 선원 분야에서 일가를 이룰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부여받았다”며 “당대 불교계가 처한 역사적 사명을 수용해 수행과 교육활동을 통해 불교를 일으켰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하지만 석전 스님은 교육기관에서 후학을 양성했으며 교를 중심에 놓으면서도 선을 배척하지 않는 관점에 놓여 있었다”며 “반면 한암 스님은 선원에서 수행 후 선을 중심으로 교육 및 중단활동에 나서는 관점을 가졌다”고 비교



4월 18일 한국불교학회에서 개최한 ‘석전과 한암, 한국불교 시대정신을 말하다’ 세미나서 두 스님의 사상이 강학과 선수행에서의 양대 축으로 자리한 현재 불교계를 있게 했다고 강조했다.

했다. 월정사 교무 자현 스님은 “두분 모두 청정한 수행가풍으로 후학들의 귀감이 된다”며 “특히 현대 사회는 교학이나 수행의 탁월성 만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대가 아니기에 이러한 두 스님의 계승 강조는 오늘날 한국불교가 나아가야 할 지남(指南)이 되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스님은 “현대 한국인들의 고성장 결과에 따른 현대의 젊은 이들은 궁극 목적인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다”며 “이런 문제를 바로잡고 해결하는데 두 스님이 보여준 수행의 모습이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한국불교사학, <한국불교사연구> 발간

한국불교사연구소(소장 고영섭)는 최근 <한국불교사연구> 제4호와 <문학/사학/철학> 제36호를 펴냈다.

<한국불교사연구> 제4호에는 ‘광해군의 외교노선과 그 논쟁의 성격’을 기획 주제로 소개한 서강대 교수의 ‘광해군의 외교노선과 그 논쟁의 성격’ △오항녕 전주대 교수의 ‘내상과 외상을 넘어-인조시대 대내외 정책’ △이철원 동국대 겸임교수의 ‘청어계의 선사상과 법통인식’ △영남 동국대 교수의 ‘부후 선수계의 선사상과 법통 인식’ 4편이 실렸다. 이와 함께 ‘삼각산 화계사 역사의 인파와 인물의 앞뒤’를 특집 주제로 소개한 영남대 교수의 ‘삼각산 화계사의 역사와 인물’ △유근자 동국대 미술학과 겸임교수의 ‘화계사 불교미술의 성격과 시주자’ △이성은 동국대 외래교수의 ‘의례로 읽는 화계사 인파의 문화’ 등이 수록됐다.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노덕현 기자

사찰 법당 앰프 설치전문

CCTV 설치 종합 안내서 무료발송

법당 스피커의 교체만으로도, 이제껏 들어보지 못한 힘차고 장엄한 소리에 놀라실 것입니다!!

(소리가 마음에 안들 경우 대금은 즉시 환불해 드립니다.)

● yk-308 표준 법당앰프 씨리즈 전국일괄 설치비 : 1,800,000원

● 법당전용 스피커

● 마이크 자체에서 소리크기 조절을 자유롭게 합니다!!

● 어떤 오래된 앰프로 사용해도 뛰어난 소리가 납니다!!

● 멋진 모양의 마이크로 법당의 품위를 높여줍니다.

● 무선마이크 V-620 : 65,000원

● 무선마이크 YD-675 : 115,000원

● 다이내믹 마이크 V-620 : 65,000원

● YD-675 : 115,000원

● 송금계좌 : 우리은행 (예금주: 김문화) 1002-610-963886

가격 : 215,000원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음향연구가, 무선설비기사

010-5335-2695 전화 (02)2697-9976 팩스 (02)2601-8284

서울시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전통식품교육사

전통식품교육사란? 국가에서 인정한 식품 원재료를 활용하여 보건식품을 개발하고 개인의 체질에 따라 식품을 맞춤 처방하는 전문가로서 전통식품원을 개원할 수 있는

보건복지부공익법인 대한보건의료진흥회 (자격검정)

자 격 과 정	교 육 기 간
인체생리학(인체해부학), 자연치유의학, 식품영양학, 식의학(동양의학, 양생학, 변증), 중탕이론 및 실습(법제론), 전통식품교육론(변증학, 방제학), 약용식품학, 총 7개 과목 ※ 특강 : 자연건강법(자세교정, 기공, 양자파동), 식품위생법규, 약초기행실습, 전통식품 효소발효액	14주 과정 목요일 반

접 수 처 서울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30-1 신한은행빌딩 5층

문 의 02)3147-2020

www.kile.or.kr

지 부 교 육 원

제 기 동 02-966-0020	창 원 055-243-6333	호 남 063-288-5623	전북익산 063-854-1060
부 산 051-441-0111	울 산 052-260-1037	충청북부 043-263-9966	대 구 053-566-1116
강원서부 033-252-3682	경 남 055-932-5877		

교육부공익법인 / 한국평생교육기구

한국보건교육원

KOREA EDUCATION CENTER FOR HEALTH